

광양매실 올 농사 걱정된다

한파·토종벌 폐사 여파 착과율 낮아 낙과·기형 등 500여 농가 피해 우려

전국 매실 생산량의 30% 대를 웃도는 주산지인 광양 매실 농가들이 착과율이 낮아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겨울 2주 이상의 한파와 남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벌들이 폐죽음을 당하면서 토종벌 농가는 물론 500여 매실 농가들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00ha 매실재배 면적에서 8500t을 생산해 300여 여원의 소득을 올렸던 농가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광양매실연구회 서인호 회장(66)은 “벌이 없어도 착과는 되지만 매실이 점차 크면서 중간에 낙과되거나 기형으로 자라 상품성이 떨어진다”

면서 “올해 모든 품종에서 착과율이 낮고 만생종의 경우 예년에 비해 40% 가량 수확량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 회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실재배 면적 및 생산량을 가지고 있으나 전문적인 매실 연구기관이 없어 매실 생산농가에 대한 다양화된 생산저해 대처방법과 실패를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시 진산면의 한 한봉농가는 “지난해부터 기록적인 한파와 남충봉아부패병 등으로 벌들이 자고나면 “벌이 없어도 착과는 되지만 매실이 점차 크면서 중간에 낙과되거나 기형으로 자라 상품성이 떨어진다”

있지 않아 소득이 크게 줄게 됐다”고 한숨 지었다.

양봉협회와 벌꿀 농가들은 겨울철 벌통 안의 온도를 최소 15도로 유지해야 하는데 최근 2년간 갑작스런 한파가 이어져 상당수의 양봉 벌들이 폐사해 과수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나마 농촌진흥청이 이상기온과 환경오염 등으로 자연계의 화분매개 곤충이 급감함에 따라 10년 전부터 매년 1~2개의 작목별로 꿀벌·위연벌·가위벌 등을 인위적으로 방사해 수분 효율 및 과실의 상품성을 높이는 현장활용 기술을 개발해 시연하고 있어 농가보급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개화 시기가 늦어 걱정했던 만큼 수확량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걱정된다”고 매실 작황을 분석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전남 동부권

이야기가 숨쉬는 순천정원박람회

생태과정 엮어 흥보집 발간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모든 과정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어낸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장 부지가 정원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생태환경적 효과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이차로 개발해 역사와 문화, 생태가 녹아있는 한편의 생태 지침서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생태 이야기” 개발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박람회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기초로 ▲토지이용에 따른 생태계 변화추이 ▲인공습지 조성 및 자연습지 복원 등 환경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생태계 개선이 순천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국내외 전문가 및 관광객들에게 홍보 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박람회장 부지 내에 얽힌 해룡산성, 향교터, 수목기증 등 역사·문화·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스토리북을 엮어나갈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전북

전주 프로야구단 창단하나

시, 창원 방문해 야구장 건립방안 등 벤치마킹

전주시가 연고 프로야구 구단 유치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12일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창원시를 방문, 프로야구 구단 유치 및 창단 등에 대한 벤치마킹 실시했다.

시는 창원시를 방문, 창원시 프로야구 신생구단 연고유치 및 창단 추진사항과 마산 야구경기장 시설보수 및 신규 야구장 건립 방안, 사회인 야구장 건립 등 야구 저변확대 추진사항 등을 확인했다.

현재 시는 전주 연고 프로야구 구단 유치 추진방향을 ▲프로구단 유치로 스포츠 도시로서의 자존심 회복 ▲신개념의 문화·여가·경제공간의 융·복합 야구 인프라 구축 ▲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시민 욕구 충족 및 문화적 자긍심 제고 ▲프로야구 구단 유치로 지역 경제 직·간접적 파급효과 증대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부적으로 특별팀을 구성·운영하고 ▲전주, 완주, 군산, 익산 등 4개 도시를 연고로 희망



마음 다스릴 차 한잔의 여유

마음 다스릴 차 한잔의 여유

보성군 산하 공무원들이 지난 12~13일 한국차박물관에서 다례(茶禮)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차 관련 사범증을 소지하고 있는 군 공직자 부인들로 구성된 감사진들이 진행했다.

<보성군 제공>

여수, 中 자본 투자유치

市-북경 투자회사 개발 협약

투자유치를 위해 중국을 순방중인 김충석 여수시장이 지난 13일 북경 화창중흥투자자문유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김충석 여수시장을 비롯한 중국 방문단은 13일 중국 북경호텔에서 중국 중소기업인 60여명을 초청, 투자설명회를 갖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김충석 여수시장은 “여수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라는 기회 요인으로 투자의 호기를 맞고 있다”며 “여수시에 투자를 결정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투자협약으로 북경 화창중흥

여수박람회 유니폼 제일모직이 만든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공식 유니폼 제작 및 공급업체 제일모직(주)이 참여한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여수시는 15일 제일모직과 공식 유니폼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들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명품 브랜드인 갤럭시, 구호, 빈플레이디스, 후부(FUBU) 등 품격 있고 세련된 유니폼을 착용할 수 있게 된다.

공식유니폼은 오는 9월까지 디자인 작업을 완료하고 품평회와 패션쇼를 거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강동석 조직위 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제일모직이 공식후원사로 참여함으로써 여수세계박람회가 세계인의 축제로 한 걸음 더 내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남원 내달 6~10일 광한루서 ‘춘향제’

‘제8회 춘향제’가 다음달 6~10일 남원시 광한루원 일대에서 열린다.

‘함께해요, 춘향사랑!’을 주제로 하는 이번 춘향제는 4개분야 27품종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축제 첫날인 6일 춘향골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에서는 무용 사랑가를 비롯 국악 관현악, 가야금 병창 공연과 대, 삼고무, 12발 삼도놀이 등 민명나는 타악 퍼포먼스로 개막을 알린다.

춘향 문화예술회에서는 6일부터 3일간 국악의 과거 시험적인 춘향국악대전이 열리고 축제경 경연으로 관소리·관악·현악·민요·병창·무용 등 6개 분야의 국악 경연대회가 춘향제 마당에서 펼쳐진다.

7일 오후에는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에서 국내 최고 기량을 가진 국악 예술인을 초청해 기악 합주·가야금

병창·무용·관소리·민요 등 전통음악 위주의 대향연을 해설과 함께 90분간 진행된다. 4개 상황극 퍼포먼스인 ‘춘향시대 속으로’는 기찰군관 순시행렬과 동헌재판, 선비와 기생풍류, 서민 풍류로 전문 연기자와 관람자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광한루원 앞 마당에서는 마당극과 해외민속음악, 사랑테마음악, 안성 바우덕이 공연, 프린지 페스티벌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장구와 삼도놀이, 윷 점, 난타 등 전통놀이 체험장이 운영된다.

이 밖에도 춘향 제향과 관소리 완창, 전국 시조경창대회, 전국궁도대회, 민속서춤대회, 전통혼례, 사진촬영대회, 백일장,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김제소방서 어린이 소방안전 체험교실



김제소방서(서장 김화성)는 지난 12~14일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동안전 체험차량을 운영, 호응을 얻었다.

체험차량은 2010년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에서 구입·제작된 8.5t 규모로 차량 내부에 첨단 체험시스템을 갖춰 다양하고 내실있는 소방안전 체험을 할 수 있다.

주요 안전체험은 지진, 비상구 찾

기, 지하철문 개폐 등 총 16종의 기계설비가 갖춰져 있다. 특히 아파트 등 고층건물 화재시 어린이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직 하강식 구조대 체험도 설치돼 있다.

김화성 김제소방서장은 “앞으로 6월과 10월에도 추가로 체험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063-540-4242)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LH 분산배치 원칙 지켜야”

시장·군수·의장단 오늘 국회의사당 상경집회

전북지역 각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산배치를 촉구하는 권기대회를 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다.

LH 분사유치추진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북도는 정부의 LH 지방이전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분사 유치를 위한 도민의 열원과 결집력을 재확인하고 분산배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하려고 권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대회에는 정세균, 정동영 등 도내 출신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직능 사회단체 회원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LH 본사의 전북이전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LH 분사 분산배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대회에서 김호서 의장 등 10명이 집단 삭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와 도 여성단체협의회, 재향군인회, 전주 상공회의소 등은 연달아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LH분사 분산배치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사진)

도의회는 “정부가 LH 분산배치를



단신

‘전북 프랜차이즈 박람회’ 6월 전주서 개최

프랜차이즈(가맹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북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6월 17~19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임실 치즈 피자와 고궁 등 도내에서 탄생한 프랜차이즈 40개와 수도권에 분사를 두고 전국적으로 가맹사업을 벌

이는 20개 등 총 60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전북도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전주 상공회의소 등 도 행사장에 창업지원관을 설치해 ▲경영 컨설팅 ▲창업 자금지원 ▲브랜드 관리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문의(063-214-0045)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7월부터 새만금산단 1-2공구 매립

새만금산업단지 1-2공구 매립이 7월부터 시작된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매립을 마무리한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 1차(95만㎡) 지구에 5월부터 331만㎡의 준설토로 기반조성을 하고 7월부터는 1-2공구 매립을 시작할 계획이다.

2공구 매립 면적은 254만㎡이며 이달 하순 실시계획 용역에 들어간다. 새만금경제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끝나는 1공구는 OCI의 투자 부지로 활용되며, 추가로 2공구를 7월부터 매립해 분양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전주시, 자전거 타기 시민운동 전개

전주시가 자전거타기 시민운동을 벌여 현재 3%대인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2015년에는 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전주시와 전주시 자전거생활협의회(상임의장 장태연 전북대교수)는 매월(7, 12월 제외) 노송광장~종합 경기장~전주역~아

중역 등 전주시내를 한 바퀴 도는 ‘2011년 전주 자전거대행진’을 개최한다. 또 시는 오는 25일 전북대·전주대 총장과 협약식을 갖고, 지난 3월 전북대와 맺은 자전거 마일리지 운동도 타 대학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부안 ‘뽕’ 가공제품 베트남·대만 수출

부안지역의 특산물인 ‘뽕’ 가공제품이 잇따라 외국에 수출됐다.

전북대 부안지역 연고산업육성사업단(단장 이양수 교수)과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김운덕)은 부안뽕주와 뽕이 고등어

등 부안 뽕으로 만든 24개 품목 3만달러 어치를 최근 베트남과 대만에 수출했다.

나라별 수출규모는 대만과 베트남에 각 2만 달러와 1만 달러 등이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